

보도자료

2021년 4월 21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술자격본부 자격기획팀 팀장 한정철 (061) 350-1621
배포: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061) 350-1325

ICT국가자격증 모바일로 제공! 대국민 디지털 검정서비스 확산!! [KCA -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발급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앞으로 ICT분야 국가자격증을 국민 누구나 원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조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이나 자격증명 등에 손쉽게 이용될 전망이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정보통신기사 등 ICT 분야 25개 국가자격증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KCA 김신겸 부원장, 네이버 유봉석 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 이번 협약으로 KCA는 ICT 국가자격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국가자격 디지털 서비스와 자격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기술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다.
 - 올 상반기에 자격자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및 양 기관 간 시스템 연동 작업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국민 누구나 네이버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ICT 국가자격증을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KCA 정한근 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모바일 자격증 발급서비스가 국민 편익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ICT분야 자격검정업무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국민 디지털 검정 서비스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김신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원장이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